

### 청자상감운학문병

경대승이 30세 나이로 병사하자, 명종은 경주에 있던 팔 척 거구의 무신 이의민을 개경으로 불러들였다. 무신정변 주요인물 중의 한 사람인 이의민은 자신을 총애했던 의종을 살해하는 일도 마다치 않은 위인이었다. 당시 이의민은 맨손으로 의종의 척추를 꺾어 죽였는데 힘센 그의 손이 닿자 의종의 등뼈는 뚝뚝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꺾꺾 웃었다고 전해졌다.



명종은 이처럼 비정하기 짝이 없는 이의민과 권력을 배분해 가졌다. 이전까지는 경대승이 독점했던 인사권을 명종도 어느 정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명종14년부터는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총애향하는 가까운 환관

들과 의논하여 6품인 참관(參官) 이상의 임명장에 왕이 직접 서명한 다음 그것을 밀봉하여 인사권을 담당하는 정조(政曹)에 보냈던 것이 그 한 예였다. 그렇다고 이의민을 능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기회를 엿보던 최충헌은 13년 동안 정권을 잡은 이의민을 살해했다. 이의민의 아들 이지영이 그의 동생 최충수가 기르던 비둘기를 강탈한 것을 구실삼아 무신들과 규합해서 그랬다. 그런 뒤 그는 명종의 폐위 명분을 원칙 없이 갈팡질팡 통치한 것에서 찾았다. 최충헌의 동생 최충수는 명종을 만나 힐난했다.

“28년이나 왕위에 있었는데, 늙고 정사를 게을리 하여 여러 소군(小君)이 은혜와 위력을 마음대로 부려 국정을 문란하게 하였으며, 폐하가 또 많은 소인들을 유달리 귀엽게 여기고 사랑해 황금과 비단을 많이 내려주어 곳간이 텅 비었으니 폐하를 어찌 폐하지 않겠소!”

최충헌 형제는 왕을 겁박하여 홀로 향성문을 나서게 한 다음 창락궁(昌樂宮)에 연금하고 태자는 강화도로 추방했다. 그런 뒤 공예태후의 다섯째 아들이자 명종의 동생 평량공(平涼公) 민(旻)이 왕위를 잇게 하여 신종(神宗)이 되게 하였다.

신종5년(1202) 9월.

이질에 걸린 명종은 기력이 떨어져 병석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이에 동생인 신종이 태의를 보내 약을 올리려고 했지만 명종은 고개를 저었다.

“28년간이나 왕위에 있었고 내 나이 72세인데 어찌 더 살기를 바라겠는가.”

명종은 치료를 거부했다. 그리고 2달 뒤인 11월에 창락궁에서 사망했다. 신종은 형인 명종을 왕의 예우로써 장례를 치르고자 했지만 최충현이 반대했다. 할 수 없이 예를 낮추어서 왕후의 의식에 준해 장사를 지냈다. 죽어서도 왕의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이다. 태자는 강화도에 있어서 장례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를 두고 백성들이 슬퍼했을 뿐이었다.

최충현이 집권했지만 민심은 여전히 흉흉했고 지방 곳곳에서는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무신정권 수립 이후 빈번해진 하층 양민과 승려세력에 의한 반란은 최충현이 집권한 뒤에도 자주 일어났던 것이다. 신종1년에는 개성에서 노비였던 만적이 누구나 공경대부가 될 수 있다고 선동하여 난이 일어났고, 그 이듬해에는 명주(溟州, 강릉) 및 동경(東京, 계림)에서 도둑이 창궐해 주군을 침범, 약탈하였다.

또한, 신종3년에는 진주의 구실아치 정방의(鄭方義) 등이 반란을 일으켰고, 금주(金州, 김해)에서는 잡족인(雜族人)이 난을 일으켜 호족을 죽였으며, 동경에서는 최대의(崔大義) 등이 난을 일으켰다. 신종5년에는 탐라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동경에서는 별초군(別抄軍)이 또 난을 일으켰다. 이듬해에는 부석사와 부인사(符仁寺)의 승려들이 반란을 꾀하다가 붙잡혀 유배형에 처해졌다.

이처럼 거듭되는 반란에 대해 최충현은 강경책으로 토벌을 강행하는 한편, 관작을 주거나 혹은 향(鄉), 소(所), 부곡(部曲) 등을 현(縣)으로 승격시켜 하층 양민을 달래기도 했다. 한편, 중앙의 문신과 무신, 그리고 지방의 지방관들을 회유하는 책략 중에 하나는 자금을 뿌리는 일이었다. 자금은 지방관들이 보내는 특산물과 세금 등으로 충당했다.

탐진의 청자도 당연히 최충헌의 인기품목 중에 하나였다. 최충헌 일가는 탐진의 상감청자를 있는 대로 다 가져가 대신과 호족들에게 고가로 팔았다. 그리하여 무신들을 다독거리는 통치자금으로 사용했다. 형보다 욕심이 많은 최충수가 자신의 집사에게 말했다.

“탐진 상감청자는 상품이고 하품이고 간에 전부 개경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 상감청자만큼 확실한 재물은 이 세상에 없다. 호족들이 금은을 가져오니까 하는 말이다. 상감청자를 좋아하지 않는 호족을 나는 본 적이 없느니라. 나는 이문을 혼자만 차지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고생한 무신들에게 나누고 베풀 것이니라.”

“예, 얼뚱 탐진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곳 향리에게 공문을 써 주겠다. 향리도 탐진에 이문을 주니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부터 탐진은 다시 청자생산이 활발해졌다. 대구소와 칠량소 향리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밤낮으로 흙을 만지는 도공들도 일손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상감청자는 무늬만 음각하고 양각하는 청자보다 품이 훨씬 더 들었다. 그러나 최충헌이 집권하면서부터 개경에서 찾는 것은 온통 상감청자뿐이었다.

물론 상감기법이 신종 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인종 때 발생하여 의종과 명종 때 진일보했고, 최씨 무신정권 초기인 신종 때에 이르러 만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어느새 대구소 향리의 품평은 한 치의 어긋남이 없었다. 대구소 향리가 평을 내리면 바로 값이 정해졌다. 사당마을에 상감청자만 굽는 가마가 늘어나자 각 마을의 행수도공들이 모여들었다. 그날도 대구소 향리는 개경에서 내려온 최충수의 집사를

사당마을의 한 가마로 안내했다. 최충수 집사 옆에는 장사 같은 그의 가노가 있었다. 가노는 거구인데 과묵했다. 행수도공이 말했다.

“폐하께서 선정을 베푸신게 우리 도공덜도 신바람이 나그만요.”

“상장군님께서 집사 나리를 내려보냈으께 더 많은 상감청자가 필요할 것 같소.”

대구소 향리 말끝에 최충수 집사가 말했다.

“향리 나리, 상장군님께서서는 상감청자를 껌찍이 좋아하십네다. 기야말로 상장군님 사저 밖에는 날마다 상감청자를 구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네다.”

“아이고메, 지덜 도공도 밤낮으로 맨들고 있그만요. 향리 나리께서 어처케나 독촉허신지 똥구녕 닻을 시간도 읊그만요.”

“향리 나리, 상장군님께 반다시 보고해서 상을 내리도록 하갓시다. 그러니까니 차질읏이만 올려보내주시라요.”

“청자운반선이 예전보다 많아졌지만 더 자꼬 와야 허지라.”

“조운선을 동원해서라도 보내주라고 건의하갓습네다.”

최충수 집사는 힘 있는 벼슬아치처럼 당당했다. 실제로 최충수의 가노마저도 낮은 직급의 구실아치들에게 거드름을 피우고 다녔다. 권신의 가노가 벼슬아치처럼 행세하고 다닌 예는 많았다. 정중부의 가노가 그러했다. 어사(御史) 진광인(晉光仁)이 정중부의 가노를 국문하였다가 화를 입을 뻔했던 것이다. 정중부의 가노가 금령을 어기고 자주빛 비단 적삼을 입고 다녔는데, 사헌대 서리가 소유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벗기도록 하였다. 그때 가노가 소유를 때리고 달아나니, 사헌대 서리가 더욱 분개하여 행인들과 함께 그를 붙잡았다. 다음 날, 중승(中丞) 송저(宋訥)와 어사 진광인이 그를 포박하고 문초하니 정중부가 화를 내면서 군사를 거느리고 어사대에 이르러 송저 등을 죽이려고 하였다. 왕은 정중부의 화를 두려워한 나머지 송저를 파직하고 진광인을 공부원 외랑으로 좌천시킨 일이 있었던 것이다.

“향리 나리, 청자를 몽두루 맨들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집사 나리, 그라고 말고라우. 우리 처지에서는 못자리 논뚜렁 파고  
옹구락지 잡는 격이지라우. 하하하.”

“향리 나리가 내 맘에 무똥 듭네다.”

“그라믄 여그 상감청자부터 구경허실라우?”

“얼똥 보고 짚습네다.”

행수도공이 자신의 동막으로 앞장섰다. 동막 작업장에는 대구소 향리의 언질이 있었는지 상감청자만 가득 했다. 작업장은 조금 어두웠지만 닫힌 문을 다 열자 환해졌다. 최충수 집사는 상감청자들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맨 앞쪽에 놓인 상감청자는 참외모양인데 모란꽃은 백토로, 줄기와 잎은 흑토로 상감돼 있었다.

“내가 일찍이 참외모양 청자는 봤지만 여기에다 모란꽃을 상감한 것은  
첨 보네다!”

“집사 나리, 놀래지는 마시지라우. 그 옆쪽 상감청자는 더 기가 맥힐 거그만요.”

향리의 말에 최충수 집사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가 마치 꽃향기라도 맡듯이 코를 벌름거렸다.

“과연 기기묘묘합네다.”

두 번째로 본 상감청자는 참외모양인데, 모란꽃과 국화꽃이 번갈아가며 백토와 흑토로 상감돼 있었다.

“이런 상감청자는 뭇이라고 부릅니까?”

“여그서는 ‘청자상감참외모양모란꽃국화꽃무늬병’이라고 하지라우.”

“용도는 뭇입니까?”

“그야 술을 담으든 술병이고, 꿀을 담으든 꿀병이지자우. 글고 매화꽃을 꽃아놓으든 매병이고.”

최충수 집사는 더 볼 것도 없다는 듯이 행수도공의 상감청자를 모두 사겠다고 말했다.

“더 볼 것이 읍습네다. 청자운반선이 오든 다 선적하시랴요.”

“선금을 주시든 더 좋겡습니다요.”

“여기 몇 점이나 있습니까?”

“상품만 모아 놓았는데 20점이라그만요.”

숫자가 적은지 최충수 집사가 약간 실망하는 듯했다. 그러자 행수도공이 다시 말했다.

“하품은 다 깨부렸그만요.”

“허허허. 아깝습네다. 담에는 하품도 놔두시라요.”

“지 맘에 안 드는디 어처케 놔두겠는게라우.”

“그라니까니 20점을 몽두루 가져갈 테니 값을 말하시라요.”

행수도공이 말을 못하자 대구소 향리가 중재했다.

“금 10냥이든 으짚게라우?”

“좋습네다! 좋습네다!”

최충수 집사가 박수를 치면서 옆에 서 있는 가노에게 말했다.

“꺼내러마.”

그러자 가노가 허리춤에서 금을 내놓았다. 사실 행수도공에게는 몹시 큰 값이었다. 1냥이면 쌀 8석이나 포 40필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충수 집사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개경으로 가지고 올라가면 값을 세 배로 쳐 호족들에게 금 30냥은 족히 받아낼 수 있어서였다. 최충수 집사는 가능한 한 상감청자를 많이 확보하려는 듯 향리에게 다른 가마를 구경하자고 재촉했다.

“나리, 20점으로는 되지 않습네다. 상장군님께서는 2백 점도 성에 차지 않을 것입네다.”

“마실 끝에 가든 참말로 욕심나는 상감청자가 있그만요. 도공인 지가 봐도 구신을 본 거맹키로 홀려분당께요.”



“근디 그 자는 숨기기만 험께 쪼깐 거시기허네. 품평헐라고 해도 보여줘야제 말이여.”

사당마을 끝에 사는 도공은 별명이 괴짜도공이었다. 자신이 만든 상감청자를 어디에 쉽게 내놓는 법이 없었다. 그가 가져가는 곳은 오직 절밖에 없었다. 승려들에게만 평을 받고 만족하는 그런 외골수도공이었다. 그래도 향리는 괴짜도공의 가마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최충수 집사가 직접 내려와 탐진의 모든 상감청자를 개경으로 가지고 갈 태세이므로 기회를 놓치면 도공만 손해였다. 아무리 좋은 상감청자라고 하더라도 팔려야 가치가 올라가지 집안 두기만 하면 그것은 고물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했다.

다행히 괴짜도공은 자신의 동막에서 작업 중이었다. 향리가 갑자기 나타나자 안절부절 못했다.

“향리 나리, 으쩐 일이당가요?”

“에끼 이 사람아, 대구소에도 나오고 그래야제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되겠는가. 시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제 머리도 돌아가는 것이여.”

“맨들다 보든 때가 오겠지라우. 쌍계사 스님이 그란디 고것을 시절인연이라고 험디다요. 지는 때를 지달리고 있그만요.”

“이 사람아, 자네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지달리는 사람 같으네. 감을 간짓대로 따야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은제 감이 입안으로 들어가겠는가.”

“그래도 목구녁에 거미줄은 치지 않그만요.”

“나는 자네가 맨든 정병을 월등사에서 봤는디 참으로 격조가 있드그만. 아참, 내가 모시고 온 분은 개경 상장군님 집사이시네. 인사드리게.”

“상장군님이든 켈로 높은 장군이신게라우?”

“성제 분이 모다 상장군님이시여.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읊던 일이제.”

최충수 집사가 약간 거만하게 말했다.

“성지 상장군님께서는 폐하를 옹립했습니다. 두 분께서 탐진청자를 가지고 오라고 했시다. 탐진 도공들로서는 영광이네요.”

“아이고메, 지같은 촌놈 청자를 어처케 상장군님께 올리겠습니까요?”

그러자 향리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걱정 마시게. 상장군님께서는 상품이든 하품이든 탐진 청자라든 다 올려보내라고 하명을 허셨다네.”

“그라든 안심이고라우.”

“한 번 보여주시게.”

“다 보여드리기는 거시기헌께 두 점만 가지고 나올게라우.”

“괴짜가 맞구만. 부끄러워서 그란지, 아까와서 그란지 보든 알겠제잉.”

괴짜도공이 동막 골방에서 상감청자 한 점을 가지고 나왔다. 상감청자의 키는 어른 손으로 세 뼘 정도로 훔칠했다. 입은 작으나 야무졌다. 그리고 어깨는 처지지 않고 약간 올라가 힘이 있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날씬해지다가 바닥은 무게를 지탱할 만큼만 했다. 넓지도 좁지도 않았다. 가슴께에는 흑토로 상감한 능화창 네 개가 있고, 그 안에는 물가의 버드나무와 물새들이 백토와 흑토로 상감돼 있었다. 마치 능화창 밖에 있는 풍경을 보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빛깔은 비색이 아닌 청회색이었지만 유약의

광택은 흠 잡을 데가 없었다. 잔 균열인 빙열 하나 없이 말끔했다.  
대구소 향리가 탄성을 질렀다.

“이런 보물을 감춰두고 자떼바떼 했그만!”

“비색이 아니라서 쪼깐 거시기해라우.”

“능화창 안에 있는 물새는 무신 새인가?”

“물에 떠 있는 새는 오리이고, 서 있는 새는 백로그만요.”

“자네는 무신 상감을 좋아하는가?”

“지는 대나무나 까치무니 상감허기를 좋아하지라우.”

“그것을 보고 싶습네다.”

“시방 맨들고 있는디 가실 가마에 구을라고 허지라우.”

“쪼깐 전에 하나를 더 보여준다고 했는디 시방 볼 수 읍겄는가?”

“약속했응께 보여드려야지라우.”

괴짜도공이 동막 골방에서 또 상감청자 한 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번에는 향리도, 집사도, 행수도공도 모두 놀랐다. 행수도공이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는 바람에 괴짜도공의 손에 든 상감청자와 부딪칠 뻔했다. 향리가 행수도공을 붙잡으며 소리쳤다.

“아이고메, 가심이 철렁 해부렀네!”

“머리에 털나고, 그러니까니 요런 귀물은 참 뵈네다.”

괴짜도공은 과한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멧쩍게 웃었다. 향리는 구름과 학 무늬를 상감한 청자병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나간 듯 멍하니 서서 꼼짝을 못했다. 모양은 좀 전에 보았던

<청자상감능화창모란문병>과 같았다. 이번 상감청자는 구름과 학의 무늬가 정교하고 화려했다.

날씬한 몸체에는 42개의 원으로 된 창이 있는데, 둥근 창속에는 학이 구름을 뚫고 위를 향해 날고, 창밖의 학 23마리는 구름 사이에서 아래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학의 날개는 백토 상감으로 하고, 부리와 다리는 흑토상감을 해서 기법의 절정을 보여 주었는데, 병에 새긴 학은 모두 65마리였다. 그러나 그것은 병이 가만히 있을 때의 숫자이고, 괴짜 도공이 병을 빙글빙글 돌리자 수천 마리의 학이 구름 사이로 비색 창공을 나는 듯했다. 최충수 집사가 탄성을 질렀다.

“천 마리 학이 날아다니는 것 같시다!”

이에 행수도공이 말했다.

“천 마리 학이 나는 것 같다고 우리 도공덜 끼리는 ‘천학 청자병’이라고 부르그만요. 서울 사람덜은 ‘청자상감구름학무늬병’이라고 허드그만요.”

문식이 있는 관원들은 <청자상감운학문병>이라고 불렀다. 괴짜도공도 놀란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만 요런 청자를 맨드는 것이 아니그만요. 쌍계사 쪽으로 올라가든 이보다 더 좋은 상감청자덜이 있지라우.”

“나는 이번에 내려온 김에 탐진의 상감청자들을 다 살 것입네다.”

“자네는 이것 말고도 있지 않은가? 집사 나리께서 사가시겠다고 현재 모다 내와보소.”

“아니그만요. 두 점 말고는 거시기허그만이라우. 그래서 메칠 전에 다 깨부렸그만요.”

“허허, 아깝네. 아까워, 방금 집사 나리께서 말씀하시지 않든가. 모다 사졌다고 말이여.”

“지는 고러코롬 살지 못해라우. 지가 맨든 청자를 지라고 생각헌께라우.”

“할 수 읍네. 자네 작품은 또 후일을 기약해야겠네.”

최충수 집사가 데리고 온 가노를 시켜 상감청자 두 점 값으로 금 10냥을 바로 내놓았다.

“금 10냥을 내놓갓시다. 쪼끔도 아깝지 않습네다.”

“위메, 위메!”

이번에는 피짜도공이 소울음 소리 같은 소리를 내며 놀랐다.

“내 생전에 요로코롬 받아 본 적이 읍어라우. 요게 먼 일이다요잉!”

대구소 향리가 말했다.

“집사 나리께서 자네 상감청자를 보물로 생각허신 것이 틀림읻네. 금 10냥을 내놓고도 쪼깁도 아깝지 않다고 하시지 않든가. 자네 말대로 시절인연이네. 횡재를 했네, 그랴.”

“지가 갑재기 도적놈이 되야분 거 같그만요.”

최충수 집사는 마음이 급했다. 탐진의 가마들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했다. 탐진에 오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대구소 향리는 종일 최충수 집사를 데리고 가마가 있는 마을들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사당마을처럼 상감청자가 도드라지게 많은 곳은 없었다. 대부분 상감청자보다는 다양한 모양의 비색청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청자칠보투각향로, 청자참외모양병, 청자사자뚜껑주전자, 청자어룡형주전자 등 등 도공들의 취향대로 자기 장기를 발휘하여 만들어진 비색청자들이었다.



며칠 후.

최충수 집사는 청자운반선이 오자, 사흘 동안 사들인 비색상감청자와 다양한 모양의 비색청자를 선적한 뒤 가노와 함께 떠났다. 대구소 향리에게 또 내려오겠다고 약속하고는 개경으로 올라갔다.<계속>